

意思疏通國語

제 10 강의

* 말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는 매일 말을 하고 살아간다.

- 어떤 말 하고
-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진다.

말로 인해

- 부정적인 사람
- 천박한 사람
- 무식한 사람

* 말투가 나쁘다면 멀리하라

오직 말투만으로도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기도 한다.

말투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말투가 비호감이면 처음부터 친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초반에 멀리 한다.

제일 싫은 건 빈정거리는 말투다.

어떤 대상이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거나

자기 의견을 덤덤히 말하면 되는데 꼭 이죽거리는 놈들이 있다.

조롱하고 말장난하는 걸 재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기분 좋아지려고 하는 게 SNS인데 그런 사람 때문에 기분 망치기 싫단다.

나는 어떤 콘텐츠든 그 내용만으로 차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말투는 따진다.

말투에는 그 사람 품성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녹아 있어서
나에게 잘해도 말투가 별로면 멀리한다.

욕할 거면 욕하고 비판할 거면 그냥 비판하면 된다.

그런데 교묘하게 말 돌려서 조롱하고 장난질 치는 건 그 자체로 참 추하다.
그런 건 타고난 그 사람 성품이라 웬만한 노력으론 못 고친다.

처음부터 멀리하는 게 좋다.

겉핥히면 남 비난하고 비꼬는 부정적인 인간은 곁에 뒀서 좋을 게 없다.
친할 땐 잘해주겠지만,
조금만 사이가 어긋나도 그 화살이 다 나에게 올 거다.
언젠가 반드시 그런다
— 강의자료

*** 말을 잘해야 하는 이유**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말을 잘하는 덕분에,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좋은 직장, 친구, 연인, 선후배 등등. . .

*** 말이 중요한 이유**

계신구시'(戒身口詩) -송시열

身是吾身口是吾(신시오신구시오) 몸은 나의 몸이고, 입도 나의 것이니

動身開口摠由吾(동신개구총유오) 몸을 움직이고 입을 여는 것은 모두 나에게 달려 있다

如何將此吾身口(여하장차오신구) 장차 나의 몸과 입을 어떻게 할까

妄動輕開反害吾(망동경개반해오) 몸을 가벼이 움직이고, 입을 가볍게 열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느니라.

—입은 몸은 베는 칼이다.

조선시대 16대 인조,17대 효종,18대 현종,19대 숙종,등 4대 임금을 섬긴 우암 송시열.

이조판서를거쳐 우의정, 좌의정 등을 지낸 문신, 대유학자로 조선왕조실록에 한 사람의 이름이 3,000번이상 나오는가하면 전국42개서원에서 그를 배향하고 있다.

소재지 :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연 대 : 17세기

작 자 : 우암 송시열(1607-1689)

크 기 : 가로 50cm, 세로 30cm

이 작품은 성산면 금산리 정산(鼎山) 아래에 있는 임경당(臨鏡堂:지방 유형문화제 제 46호)에 있다. 우암 송시열이 지은 시로, 현판에 刻字된 글씨는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의 것이다.

「戒身口詩」는 말과 행동에 잘못이 없도록 미리 조심(警戒)하라는 교훈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 운명을 바꾸는 말.**

성공하고 싶다면,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까지의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그렇다면 3 가지 질문에 답해 보라

1.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2.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3.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한다.

지금의 나보다
-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면,
- 나의 운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라

질문의 답에 따라
나의 가치가 달라지고
나의 운명이 바뀐다.

* 타고르의 깨달음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어느 날 그의 집 마당을 쓰는 하인이
세 시간 넘게 지각을 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타고르가
해고해야겠다고 걱정했다.

3시간 후

허겁지겁 달려 온 하인에게
빗자루를 던지며 말했다.

"당신은 해고야!
빨리 이 집에서 나가!"

그러자 하인은
빗자루를 들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딸애가 죽어서
아침에
묻고 오는 길입니다."

타고르는
그 말을 듣고

인간이
자신의 입장만 생각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 질 수 있는지
배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에 대해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길 때는

잠시,
상대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 추운 겨울.**

새벽 길거리에서, 신문 배달하는 아이가 떨고 있었다.

길을 가던 여인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춥니?”

신문을 배달하던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추웠는데,

‘얼마나 춥니?’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제는 춥지 않아요.

신문을 배달하던 아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추위를 녹이고 세상을 바꿉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꿉니다.

— 친구, 연인, 가족

— 이어령

* 학생

— 격려의 힘.

어머니가 어린이 집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린이 집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칭찬 하셨어.

의자에 앉아 있기를 단 1분도 못 견디던 네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 있다고 칭찬하셨어.

다른 엄마들이 모두 엄마를 부러워하더구나!”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달리 밥투정을 하지 않고,
밥을 두 공기나 똑딱 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어머니가 학부모회에 참석했을 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21등 했던 네 짝도 제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
어머니 말이 끝나자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훨씬 착하고 의젓해진 듯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졸업할 즈음에 담임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에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 기다리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담임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 하시더라.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아들은 끝내 명문고에 들어갔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명문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대학 입학 허가 도장이 찍힌 우편물을 어머니의 손에 쥐여 드리고는
영영 울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드셨다는 것 저도 알아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한 마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 마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 격려의 말.
- 칭찬의 말,
- 축복의 말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 언어의 속성**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 성격, 가정교육, 인성

부정적인 언어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장되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실 되게 이야기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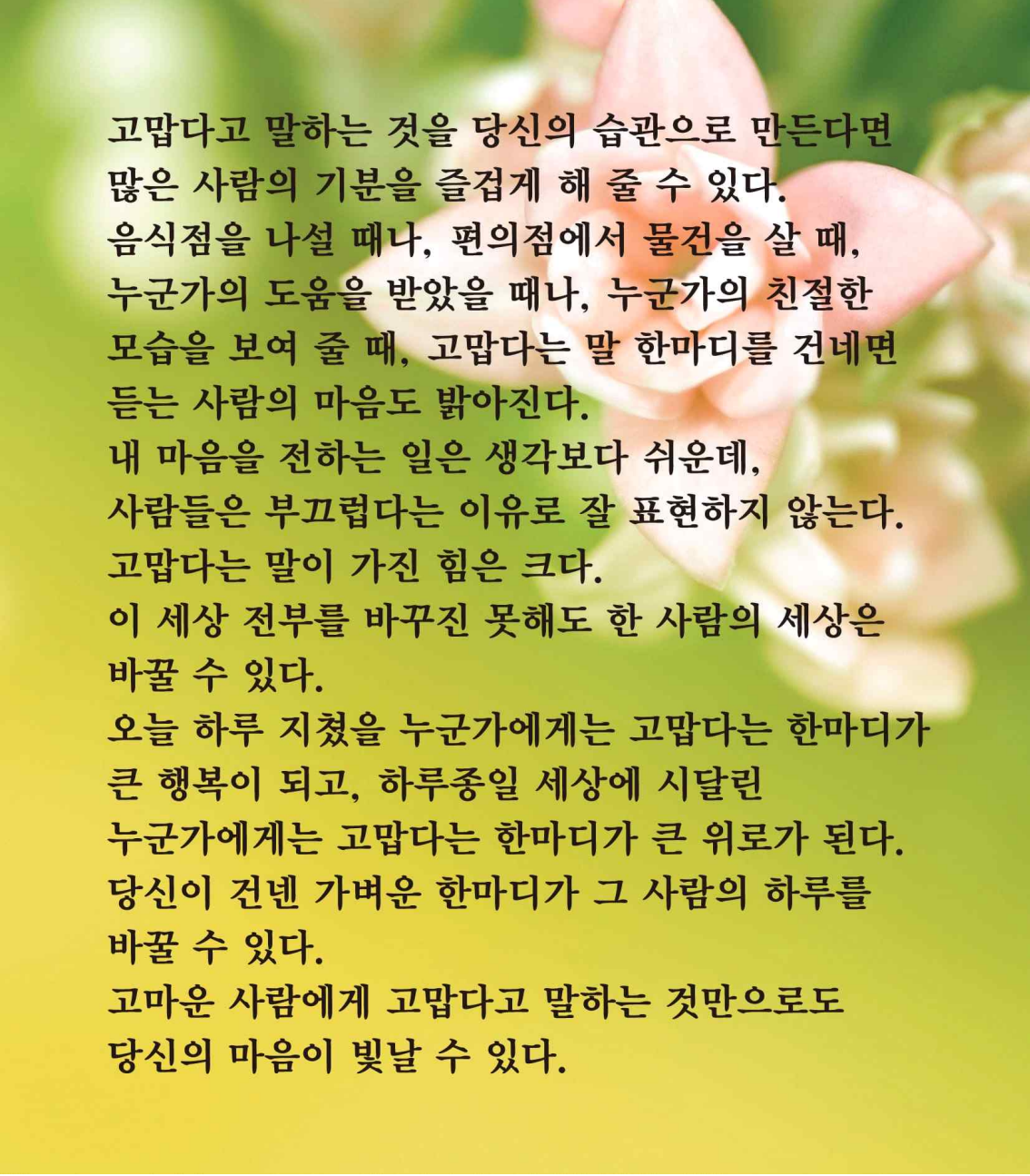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위로의 말을 내어 줍니다.

겸손한 사람이
과장하지 않고 사실을 말합니다.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말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 강의자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을 당신의 습관으로 만든다면
많은 사람의 기분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다.
음식점을 나설 때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나, 누군가의 친절하
모습을 보여 줄 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면
듣는 사람의 마음도 밝아진다.
내 마음을 전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데,
사람들은 부끄럽다는 이유로 잘 표현하지 않는다.
고맙다는 말이 가진 힘은 크다.
이 세상 전부를 바꾸진 못해도 한 사람의 세상은
바꿀 수 있다.
오늘 하루 지냈을 누군가에게는 고맙다는 한마디가
큰 행복이 되고, 하루종일 세상에 시달린
누군가에게는 고맙다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된다.
당신이 건넨 가벼운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이 빛날 수 있다.

*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운 시간들 속에서
우린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말들로 후회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야 봐야 합니다.

* 말의 법칙

아는 것은 안다고 말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의 근원이다.
－문제는 거짓말
－거짓말은 모든 화의 근원.
－white lie

모르면서 아는 체 하고
아는 것도 모르는 척하다 망신당한 적이 한 번 정도 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한다.

논어 爲政편

子曰 “由，誨女知之乎！知之爲知之，不知爲不知，是知也。”

자왈 “유, 회여지지호!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야! 너에게 아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겠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 무엇을 아는지
- 무엇을 모르는지 분명해야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할지 알게 된다.
- 너 자신을 알라.

하나를 알아도 정확히 안다면,
그 하나를 미루어 다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공자는 매사에 의욕적이나 좀 흐리멍덩한 제자 증유(仲由, 자로)
에게 분별지(分別智)의 중요성을 깨우쳤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고 깨끗하다.
침묵에 대해서 한번 쯤 후회할 수 있지만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자주 후회한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나면 며칠을 후회하게 되다.
한 순간의 침묵이 차라리 낫다.
-말을 할까 말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감정이 담겨져 있는 만큼 말을 잘 해야 한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 연인간 (인간관계) 화해의 과정**

연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상처를 받은 쪽이 솔직하게 불만을 표현하고,
-진심으로 화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법입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덮고 넘어간 상처는, 마음 깊은 곳에 쌓이고,
결국,
분노가 조금씩 자라나 인간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보여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사랑이 죽어간다.
- 바로 화해
- 길어지면 문제.

심리상담가이자 가족상담 전문가 한스 엘류셰크는
연인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 질질 끌지 말고
- 되도록 상처를 받은 즉시,
- 그것도 되도록 바로 그 날 화해를 하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한스 엘류셰크가 들려주는 ‘연인간 화해의 3단계 과정’입니다.

연인만이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화해의 기술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화해의 3단계 과정**

1단계. 상처를 준 쪽에서 겸허하게 그 사실을 인정한다.

-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은 아니야
- 설마 내가 일부러 그랬겠어?
-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은,
상대가 받은 상처를 없었던 일로 하고
그저 상처받은 쪽의 감정만 문제 삼는 발언이다.
상처 위에 또 하나의 상처가 더해지는 순간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의도가 아니라 ‘내 의도와 행동이 낳은 결과’다.

나의 태도 때문에 상대가 상처받았다고 느낀다면
내가 의도했든 아니든
상처를 준 게 맞다.

따라서 상대가 상처받았다고 말한다면,
내 쪽에서 할 말은

“맞아. 그게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 말을 하려면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 겸허함이 없으면,
상대가 받은 상처를 없애는 일도 불가능하다.

2단계. 용서를 구한다.

요즘은 진심으로 “미안해”라는 사과 한마디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과는

-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이고,
-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상대방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표시다.

그래서 요즘처럼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만연한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태도로 보이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연인 같은 밀접한 관계에서 사과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

- 어릴 때부터 사과 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 연인관계는 물론

- 대인관계에서 용서를 구하는 말 한마디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상대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아야 하고,
그것을 먼저 청하는 게 당연한 원칙이다.

상처를 준 쪽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상처를 받은 쪽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다.

3단계. 구체적인 행동과 실행 의지를 보인다.

상처 준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화해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그 말에 힘을 실어야 한다.

즉 상처를 준 쪽에서 그에 걸 맞는 보상행위가 있어야만
원래 상태로 관계가 회복되는 법이다.

이런 보상행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 진심으로 자신이 원하는 말해야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은,
- 그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정말로 화해하겠다는 의지를 입증해 보일 수 있고
말뿐인 제스처라는 누명도 벗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화해를 위한 보상행위는 상징적인 성격이 중요하므로
연인이 어떤 식으로 화해의식을 치를 것인지는 두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다.

상처를 받은 사람도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한다.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행동으로 보상한다'는 이 화해의 3단계 과정은 연인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해 주고 화해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단계다.

단, 이 경우 상처를 받은 쪽에서도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를 하려면 상처를 준 사람의 책임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상처를 받은 쪽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야만 완전한 화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같이 화목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거의 모든 상처는 나을 수 있고 연인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상처 때문에 사랑이 약해지기는커녕
- 더 깊어지기도 하고
-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과정에서 한층 더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받은 사람도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강의자료

*** 말은 그 사람의 얼굴이며 품성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신중히 조심해서 아껴가며 해야 합니다.
한 치의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 이혼, 이별, 절교는 모두 말. . .

***기분 좋은 대화법.**

1. 말 한 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기도 한다.

—넌 좋은 놈이야.

2. 충분히 생각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말한다.

—보고 싶었어

3. 비판이나 지적은 간단하게, 칭찬은 길게 한다.

4. 과거의 일들을 들추지 말고 부정적인 비교를 하지 말아야 한다.

5. 유머를 사용하여 대화를 부드럽게 하되 진솔하게 표현한다.

6.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한다.

7. 너 메시지를 대신 나 메시지로 사용한다.

예—너 왜 그래 가 아니라

너가 그러면 나는 슬퍼

—보건복지부

*** 인생을 바꾼 말 한마디**

미국의 한 대기업 CEO가 지하도를 건너다가

길거리에서 연필을 팔고 있는 걸인을 보게 되었다.

다른 행인처럼 그 CEO도 1달러만 주고

연필을 받지 않고 그냥 지하도를 건너갔습니다.

지하도를 얼마 지나지 않아

CEO는 갑자기 걸음을 멈춰서서
왔던 길을 돌아 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방금 제가 1달러를 드렸는데 연필을 못 받았군요.
연필을 주셔야지요."

걸인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1달러를 주고
지저분한 연필을 갖고 가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자 연필들 좀 봅시다.
이 연필 한 자루가 좋겠군요. 사장님"
그러자 거지는 또 다시 이상한 표정으로
CEO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도 저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매일 연필을 들고 돈을 구걸하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장님이란 말을 들은 걸인은
갑자기 자신의 자아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업가? 그래 맞아.
나는 연필을 팔았으니까. 사업가야..
당당하게 연필을 팔고 돈을 받는 사업가지!"

그 CEO의 말에 걸인은
갑자기

자아의 벽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이 달리 보기 시작했고
자기 스스로에게
"난 거지가 아니야.
난 거지가 아니야 난 사업가야" 하며
스스로에게 이야기했다.

만약 그가 "난 거지야..
그래서
-거지처럼 행동하고
-거지처럼 비굴하게 굴고
-거지처럼 표정 짓고 살아야해" 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거지의 자아의 벽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는 걸인이 아닌
사업가로 당당히 성공을 하게 되었다.
후에 그는 그에게 연필을 사주었던 그 CEO를 만나서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감사합니다"하고
고맙다며 찾아왔다는 실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꼭 거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어떤 벽에 우리를 가두어 버린다면
거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자신은 전혀 벗어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벗어날 수 있다고
자아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아의 벽을 깨부수고 당당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

*** 노력해 보겠습니다.**

*** 괜찮다는 말의 힘**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괜찮다는 한마디에 이해와 용서를 발견했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괜찮다는 한마디에 격려와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귀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괜찮다는 한마디에 사랑과 포용을 발견했습니다.

실수로 유리컵을 깨트렸습니다.
괜찮다는 한마디에 안심과 고마움을 발견했습니다.

괜찮다는 한마디로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을까요?

*** 참 고맙습니다는 말의 의미**

내 속마음을 알아주고
그 이해해 주는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내 사랑을 다 받아 주니
그 포근하고 따뜻한 배려가
참 고맙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니
그 마음의 겸손함이
참 고맙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니
그 한없이 여유로운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나의 모자람조차 칭찬해 주니
그 넉넉한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나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니
그 곁에서 동행해 주는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

***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 스승, 선배 등이 있다.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나를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만큼
더 좋은 말,
더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

특히, 부모님께 본의 아니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할 때가 너무 많다.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
반성하는 의미로 우리가 부모님께 어떤 나쁜 말들을 했는지 한 번 살펴보자.

1. 왜 낳았어?

여러분이 아무리 부모님 속을 썩여도,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삶의 존재 이유다.

그런데

"왜 낳았어?"

혹은

"내가 죽는 게 나은 거 같아"라는 말은,
부모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여러분 어릴 때. . .

2. 난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 부모님은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부모님의 사는 모습이 자신의 맘에 들지 않을지라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3. 나한테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해준 게 너무나도 많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육아.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라는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도 자식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다.

안 그래도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께

비수를 꽂아선 안 된다.

4. 다른 집 부모들은 안 그래

—비교는 불행의 시작

'엄친딸', '엄친아'와 비교되기 싫은 게 자식들의 속마음인 것처럼,

부모님들도 다른 부모와 비교되기를 원치 않는다.

아무리 화목한 집안이라도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다른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할 필요는 없다.

5. 엄마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이다"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일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다.

이 같은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6. 이게 다 엄마 아빠 때문이야

모든 문제가 전부 다 부모님 탓이 아니라는 것은 자식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일이 마음대로 안 돼도

—친구가 없어도

—공부를 못해도

—돈이 없어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무심코 "이게 다 엄마 아빠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하게 된다.

무심코 하는 말이 부모님께 더 큰 상처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게 좋다.

7. 엄마 아빠가 뭘 알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이 세상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좀 더 자라고 나면 부모님도 모르는 게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다 큰 자식들에게 듣는 "엄마 아빠가 뭘 알아"라는 말은 부모님께 씁쓸함과 자괴감을 남긴다.

* "애비야 나 삼 만원만 주고 가져라."

"없어요."

80살이 넘는 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하는 아들에게

사정을 했건만

아들은 냉정하게 거절을 하였다.

늙은 아버지는 이웃 노인들과
어울리다 얻어만 먹어 온
소주를 한 번이라도 갚아주고 싶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다
부자간의 대화와
시아버지의 그늘진 얼굴을 훑쳐본
며느리는 한참 무엇을 생각하더니
밖으로 달려 나갔다.

한참 만에 버스를 막 타려는
남편을 불러 세워
숨찬 소리로 손을 내밀었다.

"여보, 돈 좀 주고가요."

"뭐하게?"

"애들 옷도 사 입히고
여고 동창생 계모임도 있어요."

안주머니에서 오만 원 가량을
꺼내 헤아리며 담뱃값이 차값이
어찌니 대폿값이 어찌니 하는 것을
몽땅 빼앗아 차비만 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아파트 양지바른
벽에 기대 하늘만 바라보는
시아버지께 돈을 몽땅 내밀었다.

"아버님,
이 돈으로 드시고 싶은 소주도 잡수시고
친구들과 대공원에도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연신 눈물이 쏟아지려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고마워서
말을 잇은 채
어떻게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그리고는 왜 애들 얼굴에 꾸중물이
찌찌하게 이렇게 더럽느냐고 말했다.

그 이튿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애들 꼴이 더러워져가고 있었다.
새까만 손등이며, 며칠전까지만 해도
반드레하던 애들이 거지꼴로 변해갔다.

남편은 화를 벌컥 내어 고함을 쳤다.

"여편네가 하루 종일 뭐 하길래
애들 꼴을 저렇게 만들어 놓았어!"

남편의 화난 소리를 듣고 있던
아내도 화를 내어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저 애들을 곱게 키워봐야
당신이 아버지께 냉정히
돈 삼만 원을 거절했듯이
우리가 늙어서 삼만 원 달래도
안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은 뭇 때문에
애들을 깨끗이 키우려고 해요?"

아내의 말에 기가 질려버린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늙은 아버지의 방문을 열었다.

늙은 아버지는 아들의 무정함을
잊은 채 어서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늙은 아버지는
"회사일이 고되지 않느냐?
환절기가 되었으니
감기에 조심해야 한다." 고
어린애처럼 타이르는 것이다.

아버지의 더 없는 사랑에
아들은 그만 옆드려
엉엉 울고 말았다.

속담에도 한 아버지는
열 아들을 키울 수 있으나
열 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자식이 배부르고 따뜻한가를,
늘 부모는 묻지만
부모의 배고프고 추운 것은
자식들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

자식들의 효성이 아무리 지극해도
부모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부모가 짐이 되고
효가 귀찮게만 생각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효는 예부터 가족을
사랑으로 묶는 밧줄과 같은 것이다.

부모는 누구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깨끗한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자 애를 씁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에는 옳고 그름이 없지만
사랑의 방식에는 옳고 그름이 있어요.
-사랑의 방식 때문에
-성공, 실패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부모가 다 해주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켜보는 게 좋아요.

부모가 계속 밥을 해주면
아이는 부모가 안 오면 굶고 있어야 하지만

밥하는 법을 가르치면

부모가 없을 때 스스로 해 먹을 수 있습니다.

누가 있을 때 행복하고 없을 때 불편해진다면

아이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식이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 부모는 아이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부해라. 공부해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 말을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 경험과 통계

— 행복은. . .

아이에게 말을 아끼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워주세요.

20살이 되기 전에

— 혼자서 빨래도 하고

— 밥 할 수 있는 능력과

— 침대정리

—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해주는 것

이것만 해줘도

아이는

자기 삶에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안정감이 없으면,
아무리 직업이 좋고 지위와 돈이 많아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음악, 미술, 여행

아이 혼자 일어나서 스스로를 챙길 수 있게
믿고 기다려주세요

사랑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해주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는 것
그것이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강의자료

* 말의 의미

살다 보면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욕, 흥

살다 보면
기분 좋은 말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이 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
—생각 없이 한 말이 상대를 죽일 수도 있다.

살다 보면 칼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어찌면

우린 말 한마디에

좋은 인연

또는

악연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또는

남남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

－ 형제자매, 친구 남남－언어 때문에

우린 사람이기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싫은 말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다스릴 수 있기에

나 자신이 소중한 것처럼,

남도 소중히 생각한다면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 기분 좋고,
- 밝고,
- 맑고,
- 희망의 말만 한다면

서로 환한 미소로
힘든 세상,
육체는 힘들어도
편안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인연으로
살아 갈 수 있다
- 미소

*** 한 이발사가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젊은 도제를 한 명 들였다.**

젊은 도제는 3개월 동안 열심히 이발 기술을 익혔고
드디어

1. 첫 번째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그 동안 배운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여
첫 번째 손님의 머리를 열심히 깎았다.

그러나 거울로 자신의 머리 모양을 확인한 손님은
투덜거리듯 말했다.

“머리가 너무 길지 않나요?”

초보 이발사는 손님의 말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를 가르쳤던 이발사가 웃으면서 말했다.

“머리가 너무 짧으면 경박해 보인답니다.

손님에게는 긴 머리가 아주 잘 어울리는 걸요.”

그 말을 들은 손님은 금방 기분이 좋아져서 돌아갔다.

2. 두 번째 손님이 들어왔다.

이발이 끝나고 거울을 본 손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말했다.

“너무 짧게 자른 것 아닌가요?”

초보 이발사는 이번에도 역시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다.

옆에 있던 이발사가 다시 거들며 말했다.

“짧은 머리는 긴 머리보다 훨씬 경제하고 정직해 보인답니다.”

이번에도 손님은 매우 흡족한 기분으로 돌아갔다.

3. 세 번째 손님이 왔다.

이발이 끝나고 거울을 본 손님은

머리 모양은 무척 마음에 들어 했지만,

막상 돈을 낼 때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것 같군.”

초보 이발사는 여전히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다.

그러자 이번에도 이발사가 나섰다.

“머리 모양은 사람의 인상을 좌우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머리 다듬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요.”

그러자 세 번째 손님 역시 매우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다.

4. 네 번째 손님이 왔고

그는 이발 후에 매우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참 솜씨가 좋으시네요. 겨우 20분 만에 말끔해졌어요.”

이번에도 초보 이발사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이발사는 손님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말했다.

“시간은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님의 바쁜 시간을 단축했다니 저희 역시 매우 기쁘군요.”

그날 저녁,

초보 이발사는 자신을 가르쳐준

이발사에게 오늘 일에 대해서 물었다.

이발사는 말했다.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다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손해 보는 것도 있지.

또한 세상에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네.

나는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네에게 격려와 질책을 하고자 한 것뿐이라네.”

—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말하는 기술입니다.

- 똑같은 상황에서도 말 한 마디에 의해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 우동 한 그릇 구리 료헤이

해마다 선달 그믐날이 되면,
우동집으로서는 일 년 중 가장 바쁠 때이다.
"북해정"도 이 날만은 아침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보통 때는 밤 12시쯤이 되어도 거리가 번잡한데
그 날 만큼은 밤이 깊어질수록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라지
고
10시가 넘자 북해정의 손님도 뜸해졌다.
사람은 좋지만 무뚝뚝한 주인보다
오히려 단골손님으로부터 주인 아줌마라고 불리우고 있는 그의 아내는
분주했던 하루의 답례로 임시종업원에게 특별상여금 주머니와 선물로 국수
를 들려서 막 돌려보낸 참이었다.

마지막 손님이 가게를 막 나갔을 때,
슬슬 문 앞의 옥호막(가게이름이 쓰여진 막)을 거들까 하고 있던 참에,
출입문이 드르륵하고 힘없이 열리더니 두 명의 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
어왔다.
6세와 10세 정도의 사내들은 새로 준비한 듯한 트레이닝 차림이었고,
여자는 계절이 지난 체크무늬 반코트를 입고 있었다.
"어서오세요!" 라고 맞이하는 주인에게,
그 여자는 머뭇머뭇 말했다.

"저..... 우동 일인분만 주문해도 괜찮을까요."

뒤에서는 두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다.

"네..... 네. 자, 이쪽으로."

난로 곁의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여주인은 주방 안을 향해,

"우동, 1인분!" 하고 소리친다.

주문을 받은 주인은 잠깐 일행 세 사람에게 눈길을 보내면서,

"예!" 하고 대답하고,

삶지 않은 1인분의 우동 한 덩어리와 거기에 반 덩어리를 더 넣어 삶는다.

둥근 우동 한 덩어리가 일인분의 양이다.

손님과 아내에게 눈치 채지 않은 주인의 서비스로 수북한 분량의 우동이 삶아진다.

테이블에 나온 가득 담긴 우동을 가운데 두고,

이마를 맞대고 먹고 있는 세 사람의 이야기 소리가 카운터 있는 곳까지 희미하게 들린다.

"맛있네요." 라는 형의 목소리.

"엄마도 잡수세요." 하며 한 가닥의 국수를 집어 어머니의 입으로 가져가는 동생.

이윽고 다 먹자 150엔의 값을 지불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라고

머리를 숙이고 나가는 세 모자에게

"고맙습니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주인 내외는 목청을 돋워 인사했다.

신년을 맞이했던 북해정은 변함없이 바쁜 나날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다시 12월 31일을 맞이했다.

지난해 이상으로 몹시 바쁜 하루를 끝내고,

10시를 막 넘긴 참이어서 가게를 닫으려고 할 때

드르륵 하고 문이 열리더니

두 사람의 남자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여 주인은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체크무늬의 반코트를 보고,
일 년 전 선달 그믐날의 마지막 그 손님들임을 알아보았다.
"저..... 우동 일인분입니다만.....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여주인은 작년과 같은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우동 일인분!" 하고 커다랗게 소리친다.

"네엿! 우동 일인분." 라고 주인은 대답하면서 막 꺼버린 화덕에 불을 붙인다.

"저 여보, 서비스로 3인분 내줍시다." 조용히 귀엣말을 하는 여주인에게,
"안돼요. 그런 일을 하면 도리어 거북하게 여길 거요." 라고 말하면서
남편은 둥근 우동 하나 반을 삶는다.

"여보,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좋은 구석이 있구려."
미소를 머금은 아내에 대해,
변함없이 입을 다물고 삶아진 우동을 그릇에 담는 주인이다.

테이블 위의 한 그릇의 우동을 둘러싼 세모자의 얘기소리가 카운터 안과 바
깥의 두 사람에게 들려온다.

"으.... 맛있어요."

"올해도 북해정의 우동을 먹게 되네요?"

"내년에도 먹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다 먹고, 150엔을 지불하고 나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에 주인 내외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날 수십 번 되풀이했던 인사말로
전송한다.

그 다음해의 선달 그믐날 밤은 어느 해보다 더욱 장사가 번성하는 중에 맞
게 되었다.

북해정의 주인과 여주인은 누가 먼저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9시 반이 지날 무렵부터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른다.
10시를 넘긴 참이어서 종업원을 귀가시킨 주인은 벽에 붙어 있는 메뉴표를
차례차례 뒤집었다.
금년 여름에 값을 올려 "우동 200엔"이라고 써어져 있던 메뉴표가 150엔으로
둔갑하고 있었다.
2번 테이블 위에는 이미 30분 전부터 <예약석>이란 팻말이 놓여져 있다.

10시 반이 되어,
가게 안,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거나 한 것처럼,
모자 세 사람이 들어왔다.
형은 중학생 교복,
동생은 작년 형이 입고 있던 잠바를 헐렁하게 입고 있었다.
두 사람 다 몰라볼 정도로 성장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엄마는 색이 바랜 체크무늬 반코트 차림 그대로였다.

"어서 오세요!"
라고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여 주인에게,
엄마는 조심조심 말한다.
"저..... 우동 이인분인데도..... 괜찮겠죠?"
"넛. 어서 어서. 자 이쪽으로."라며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여주인은 거기 있던 <예약석>이란 팻말을 슬그머니 감추고 카운터를 향해
서 소리친다.
"우동 이인분!"
그걸 받아, "우동 이인분!" 이라고 답한 주인은 둥근 우동 세 덩어리를
뜨거운 국물 속에 던져 넣었다.
두 그릇의 우동을 함께 먹는 세 모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고,
이야기도 활기가 있음을 느껴졌다.
카운터 안에서,

무심코 눈과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짓는 여주인과 예의 무뚝뚝한 채로 응응,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주인이다.

"형아야, 그리고 준아, 오늘은 너희 둘에게 엄마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
구나."

"고맙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실은,

돌아가신 아빠가 일으켰던 사고로 여덟 명이나 되는 사람이 부상을 입었잖
니. 보험으로도 지불할 수 없었던 만큼을,
매월 5만 엔씩 계속 지불하고 있었단다."

"음----- 알고 있어요." 라고 형이 대답한다.

여주인과 주인은 몸도 꿈쩍 않고 가만히 듣고 있다.

"지불은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었지만,
실은 오늘 전부 지불을 끝낼 수 있었단다."

"넛! 정말이에요? 엄마!"

"그래, 정말이지. 형아는 신문배달을 열심히 해주었고,
준이 장보기와 저녁 준비를 매일 해준 덕분에 엄마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
었던 거란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로부터 특별수당을 받았단다.
그것으로 지불을 모두 끝마칠 수 있었던 거야."

"엄마! 형! 잘됐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저녁 식사준비는 내가 할 거예요."

"나도 신문배달, 계속할래요. 준아! 힘을 내자!"

"고맙다. 정말로 고마워." 형이 눈을 반짝이며 말한다.

"지금 비로소 애긴데요, 준이하고 나, 엄마한테 숨기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11월 첫째 일요일,

학교에서 준이의 수업 참관을 하라고 편지가 왔었어요.

그 때, 준은 이미 선생님께서로부터 편지를 받아놓고 있었지만요.
준이 쓴 작문이 북해도의 대표로 뽑혀,
전국 콩쿠르에 출품되게 되어서 수업 참관일에 이 작문을 준이 읽게 됐대요.
선생님이 주신 편지를 엄마에게 보여드리면 무리를 해서 회사를 쉬실 걸
알기 때문에 준이 그걸 감췄어요.
그걸 준의 친구들한테 듣고 내가 참관일에 갔었어요."
"그래..... 그랬었구나. 그래서."

"선생님께서, 너는 장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제목으로,
전원에게 작문을 쓰게 하셨는데,

준은 <우동 한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써서 냈대요.
지금부터 그 작문을 읽어드릴게요.
<우동 한그릇>이라는 제목만 듣고, 북해정에서의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
에.....

준 녀석 무슨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썼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작문은. . .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많은 빚을 남겼다는 것,
엄마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조간, 석간 신문을 배달하고 있다는 것 등.....
전부 씌어 있었어요.
그리고서 12월 31일 밤 셋이서 먹을 한 그릇의 우동이 그렇게 맛있었다는
것.

셋이서 다만 한 그릇밖에 시키지 않았는데도 우동집 아저씨와 아줌마는,
고맙습니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해주신 일.

그 목소리는.....

지지 말아라!

힘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준은, 어른이 되면,
손님에게 힘내라! 행복해라! 라는 속마음을 감추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제일의 우동집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커다란 목소리로 읽었어요."

카운터 안쪽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을 주인과 여주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카운터 깊숙이 웅크린 두 사람은,
한 장의 수건 끝을 서로 잡아당길 듯이 붙잡고,
참을 수 없이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작문 읽기를 끝마쳤을 때 선생님이,
준의 형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와주었으니까,
여기에서 인사를 해달라고해서....."

"그래서 형아는 어떻게 했지?"

"갑자기 요청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이 안 나왔지만
여러분, 항상 준과 사이좋게 지내줘서 고맙습니다.

동생은 매일 저녁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활동 도중에 돌아가니까, 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동생이 <우동 한그릇>이라고 읽기 시작했을 때 나는 처음엔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펴고 커다란 목소리로 읽고 있는 동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한 그릇의 우동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그릇의 우동을 시켜주신 어머니의 용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힘을 합쳐, 어머니를 보살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준과 사이좋게 지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차분하게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웃다가 넘어질 듯이 어깨를 두드리기도 하고,

작년까지와는 아주 달라진 즐거운 그믐날 밤의 광경이었다.

우동을 다 먹고 300엔을 내며 "잘 먹었습니다."라고 깊이깊이 머리를 숙이며
나가는 세 사람을,

주인과 여주인은 일 년을 마무리하는 커다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전송했다.

다시 일 년이 지나

북해정에서는,

밤 9시가 지나서부터 <예약석>이란 팻말을 2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그 세 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해에도,

또 다음 해에도,

2번 테이블을 비우고 기다렸지만, 세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북해정은 장사가 번창하여,

가게 내부수리를 하게 되자,

테이블이랑 의자도 새로이 바꾸었지만 그 2번 테이블만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새 테이블이 나란히 있는 가운데에서 단 하나 낡은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는 것이다.

"어째서, 이것이 여기에?" 하고 의아스러워하는 손님에게 주인과 여주인은 <우동 한그릇>의 일을 이야기하고,
이 테이블을 보고서 자신들의 자극제로 하고 있다.
어느 날인가 그 세 사람의 손님이 와줄지도 모른다.
그 때 이 테이블로 맞이하고 싶다 라고 설명하곤 했다.
그 이야기는, "행복의 테이블"로써,
이 손님에게서 저 손님에게로 전해졌다.

일부러 멀리에서 찾아와 우동을 먹고 가는 여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 테이블이 비길 기다려 주문을 하는 젊은 커플도 있어
상당한 인기를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나서 또, 수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해 선달그믐의 일이다.

북해정에는,
같은 거리의 상점회 회원이며 가족처럼 사귀고 있는 이웃들이 각자의 가게
를 닫고 모여들고 있었다.
북해정에서 선달그믐의 풍습인 해 넘기기 우동을 먹은 후,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동료들과 그 가족이 모여 가까운 신사에
그 해의 첫 참배를 가는 것이 5,6년 전부터의 관례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도 9시 반이 지나 생선가게 부부가 생선회를 가득 담은 큰 접시를
양손에 들고 들어온 것이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평상시의 동료 30여명이 술이랑 안주를 손에 들고 차례차례 모여들어 가게
안의 분위기는 들떠있었다.

2번 테이블의 유래를 그들도 알고 있다.

입으로 말은 안 해도

아마,

금년에도 빈 채로 신년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선달 그믐날 10시 예약석"은 비워 둔 채 비좁은 자리에 전원이 조금씩 몸을 좁혀 앉아 늦게 오는 동료를 맞이했다.

우동을 먹는 사람,

술을 마시는 사람,

서로 가져온 요리에 손을 뻗히는 사람,

카운터 안에 들어가 돕고 있는 사람,

멋대로 냉장고를 열고 뭔가 꺼내고 있는 사람 등등으로 떠들썩하다.

바겐세일 이야기,

해수욕장에서의 에피소드,

손자가 태어난 이야기 등,

번잡함이 절정에 달한 10시 반이 지났을 때,

입구의 문이 드르륵 하고 열렸다.

몇 사람인가의 시선이 입구로 향하며 동시에 그들은 이야기를 멈추었다.

오바를 손에 든 정장 슈트차림의 두 사람의 청년이 들어왔다.

다시 얘기가 이어지고 시끄러워졌다.

여주인이 죄송하다는 듯한 얼굴로 "공교롭게 만원이어서" 라며 거절하려고 했을 때,

화복(일본 옷) 차림의 부인이 깊이 머리를 숙이며 들어와서,

두 청년 사이에 섰다.

가게 안에 있는 모두가 침을 삼키며 귀를 기울인다.

화복을 입은 부인이 조용히 말했다.

"저..... 우동..... 3인분입니다만..... 괜찮겠죠?"

그 말을 들은 여주인의 얼굴색이 변했다.

십 수년의 세월을 순식간에 밀어 짓히고,

그 날의 젊은 엄마와 어린 두 아들의 모습이 눈앞의 세 사람과 겹쳐진다.

카운터 안에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 주인과 방금 들어온

세 사람을 번갈아 가리키면서,

"저..... 저..... 여보!"하고 당황해하고 있는 여주인에게 청년 중 하나가 말했다.

"우리는, 14년 전 선달 그믐날 밤, 모자 셋이서 일인분의 우동을 주문했던 사람입니다.

그 때의 한 그릇의 우동에 용기를 얻어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외가가 있는 시가현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금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교토의 대학병원에 소아과의 병아리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4월부터 삿뽀로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 인사도 하고 아버님 묘에도 들를 겸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동집 주인은 되지 않았습시다만 교토의 은행에 다니는 동생과 상의해서,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에서 최고의 사치스러운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선달 그믐날 어머님과 셋이서 삿뽀로의 북해정을 찾아와 3인분의 우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던 여주인과 주인의 눈에서 왈각 눈물이 넘쳐흘렀다.

입구에 가까운 테이블에 진을 치고 있던 야채가게 주인이 우동을 입에 머금

은 채 있다가 그대로 꿀꺽하고 삼키며 일어나,
"여봐요 여주인 아줌마! 뭐하고 있어요! 십년간 이 날을 위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기다린 설날 그믐날 10시 예약석이잖아요. 안내해요. 안내를!"

야채가게 주인의 말에 번뜩 정신을 차린 여주인은,
"잘 오셨어요. 자 어서요. 여보! 2번 테이블 우동 3인분!
"무뚝뚝한 얼굴을 눈물로 적신 주인,
"네엿! 우동 3인분!"

예기치 않은 환성과 박수가 터지는 가게 밖에서는 조금 전까지 훑날리던
눈발도 그치고,
갓 내린 눈에 반사되어 창문의 빛에 비친 <북해정>이라고 쓰인 옥호막이
한 발 앞서 불어제치는 정월의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 끝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용기를 얻어, 고난을 또 다른 희망으로 바꾸어 나갑니
다.

‘우동 한 그릇’이라는 책을 읽고.
내 주위에 북해정의 부부같은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

세 사람이 한 그릇의 우동을 시켰을 때,
거절했다면,
그 자식들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동은 그냥 우동이 아니라 용기와 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해정의 주인부부의 따뜻하고 인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에는 어머니와 두 아들처럼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 이웃들을 도와주었는가?

—오히려 그러한 불우한 이웃을 외면하고 피하며 살아온 것 아닌가?

그러나 이제는 북해정의 주인부부의 마음을 본 받아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꾸뚝하게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두 아들을 여러분이 본받아야 합니다.

모자(母子)가

우동집 주인 내외로부터 받았던 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기 위한 우동 한 그릇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용기와 사랑과 희망

*** 못 박힌 나무**

남편이 미울 때마다

아내는 나무에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할 때에는

아주 굵은 대못을 쿵쿵 소리 나게 때려 박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때리고
욕설을 하거나 화나는 행동을 할 때에도
크고 작은 못들을 하나씩 박았고
못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불러
못이 박힌 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 못은 당신이 잘못할 때마다
내가 하나씩 박았던 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박을 곳이 없습니다.
이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무에는 크고 작은 못이 수 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못 박힌 나무를 보고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나무를 끌어안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차츰 변합니다.
지극히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남편으로...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다시 나무가 있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이것 보세요. 당신이 내게 고마울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뺐더니 이제는 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남편은 ‘여보! 아직 멀었소.

그 못은 모두 뺏다 할지라도
못 박힌 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소...'

그 말에 아내는 남편을 부둥켜안고서 한없이 울어버렸습니다.
-좋은 글 나눔

*** 1초 동안 할 수 있는 짧은 말**

처음 뵙겠습니다.

1초 동안 할 수 있는 이 짧은 말로
일생의 순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마워요.

1초 동안 할 수 있는 이 짧은 말로
사람의 따뜻함을 알 때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1초 동안 할 수 있는 이 짧은
말로 용기가 되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축하해요.

1초 동안 할 수 있는 이 짧은 말로
행복이 넘치는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초 동안 할 수 있는 이 짧은 말에서
인간의 약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안녕.

1초 동안 할 수 있는 이 짧은 말이
일생 동안의 이별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만나면 무슨 말이든 명랑하게
먼저 말을 건네십시오.
그리고 웃으십시오.

상대방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든 불러 주십시오.

그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상대방 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칭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상대방의 장점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늘 신속히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유머와 겸손을 더 하십시오.
행복도 불행도 결국
내 마음과 말이 만들어 냅니다.

우발적이고 잔인한 범죄 역시
날카로운 말이 도화선이 될 때가 많습니다.

행복할 때보다 지치고 힘들수록 더욱 말에 절제하며

대신 진주같은 지혜로운 사랑의 말들로
우리 삶의 그림을 멋지게
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자료

* 말

내가 두 귀로 들은 이야기라 해서 다 말할 것이 못되고
내가 두 눈으로 본 일이라 해서 다 말할 것 또한 못 된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
—평가나 판단은 잠시 미룬다.

들은 것을 들었다고 다 말해 버리고
본 것을 보았다고 다 말해버리면
자신을 거칠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궁지에 빠지게 한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욕설이나 비평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또 남의 단점을 보려고도 하지 않으며 남의 잘못을 말하지도 않는다.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입을 잘 지키라고 했다.

맹렬한 불길이 집을 다 태워버리듯이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입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고 만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날이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 마음의 문인 입을 잘 다스려야 한다.

입을 잘 다스림으로써 자연 마음이 다스려 진다.

앵무새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자기 소리는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말을 잘 한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를 못했다면
앵무새와 그 무엇이 다르리오.

세 치의 혀바닥이 여섯 자의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법정 스님

“용서하면 한 영혼이 해방된다. 그러나 ‘미안하다’라고 하면 두 영혼이 해방
된다.”
-도널드 L. 히스-

*** 만날 때 하면 좋은 말**

만날 때 먼저 **안녕**이라는 말을 하자.
상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하는 마음.

1. 상대의 화를 가라앉히는 말

-미안해

2. 겸손한 인격의 쌓는 말

-고마워

3. 상대의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말

— 잘했어

4. 화해를 부르는 말:

—내가 잘못 했어

5. 존재감을 키워주는 말

—당신이 최고야

6. 상대의 기분을 '업' 시키는 말

—오늘 아주 멋져 보여

7.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말

—네 생각은 어때?

8. 든든한 위로의 말

—내가 뭐 도울 일 없어?

9. 상대의 자신감을 치솟게 하는 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10. 상대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말

—당신을 믿어

11. 용기를 크게 키우는 말

—넌 할 수 있어

12. 충고보다 효과적인 공감의 말

—잘되지 않을 때도 있어

13.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호감을 사는 말

—당신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

14. 자녀의 앞날을 빛나게 하는 말

—네가 참 자랑스러워

15.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말

—괜찮아. 잘 될 거야.

16. 상대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

—보고 싶었어.

17. 배우자에게 사는 보람을 주는 말

—난 당신밖에 없어

18. 상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말

—역시 넌 달라

19. 상대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말

—그동안 고생 많았어.

20.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에 눈뜨게 해주는 말

—한 번 해볼까?

—강의자료

* 오늘의 명언

- 말 한 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

과제 : 「우동 한 그릇」을 읽고,
말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분량 : A4용지 한 장

과제제출 ID : beach1014@hanmail.net